

# 꼬리 보험론



너석의 주장은 인간의 꼬리가 부활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간의 꼬리 부활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는 요지였다.

너석의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은 한국보험(주)가 창립 15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2천년대의 보험상품 심포지움>에서 주목을 끌었는데, 보험업계와는 문외한인 너석이 보험심포지움의 연단에 서게 된 내력과 '꼬리보험론'을 제창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그날 여의도 본사 강당에서는 보험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가 높아졌음을 증명하듯 입주의 여지 없는 대성황 속에서 심포지움이 진행되고 있었다. 너석은 당초 초청 연사도 아닌 일반 방청객에 불과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너석이 중앙 연단에 뛰어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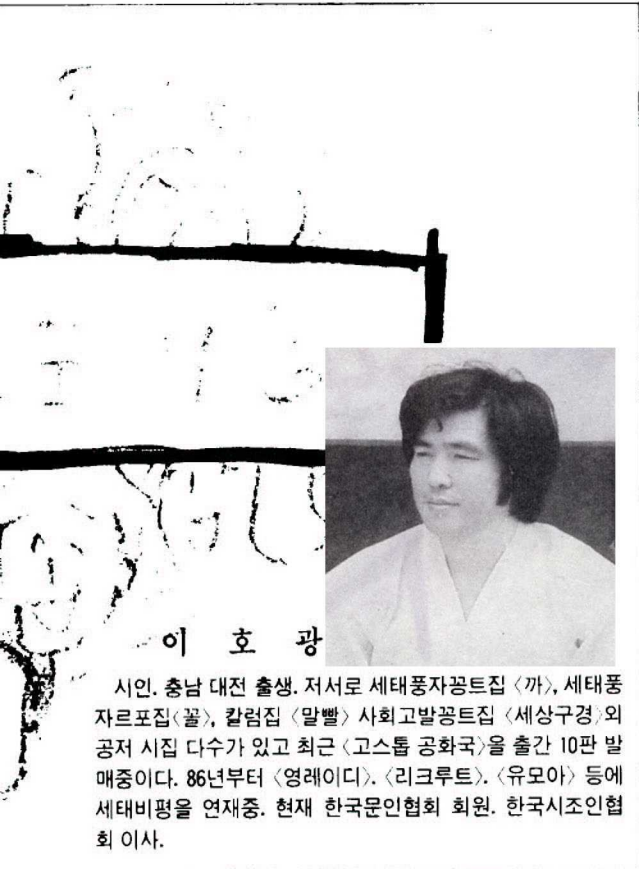
이제 막 주제 발표가 끝나고 다음 연사를 소개하려던 사회자는 너석이 연단에 뛰어 오르자 테러범

으로 오인, 경비원을 동원해서 너석을 제지했다. 그러나 '나에게 죽음이 아니면 마이크를 달라'며 완강히 버티는 너석의 절규가 어찌나 애절했던지 호기심이 발동한 방청객들이 너석에게 발언권을 주라고 동조함으로써 피짜 강연은 비릇된 것이다.

너석의 발언을 제지하려 했던 주최측과 너석의 '절규'에 동조한 방청객들은 너석이 '시국발언'을 하려는 것이라 판단했었다. 그런데 너석의 강연 스토리는 요상야릇하게 핸들을 좌회전으로 꺾고 있지 않은가?

"인간에게 꼬리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네를 뿔 때 후진했다가 전진으로 전환하는 순간, 즉 뽕무늬에 힘을 주는 순간 그 옛날 꼬리가 붙어 있던 척추끝 치골(椎骨)부분이 새콤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에게 꼬리가 있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연단을 점거, '죽음이 아니면 마이크' 어찌구 하



## 이 호 광

시인. 충남 대전 출생. 저서로 세태풍자공트집 <까>, 세태풍자르포집 <꿀>, 칼럼집 <말빨> 사회고발공트집 <세상구경>외 공저 시집 다수가 있고 최근 <고스톱 공화국>을 출간 10판 발매중이다. 86년부터 <영레이디>, <리크루트>, <유모아> 등에 세태비평을 연재중. 현재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시조인협회 이사.

며 절규했던 너석의 입에서 '인간의 꼬리' 어쩌구 하는 열도당토않은 헛소리가 시작되자 '시국발언'에 잔뜩 기대하고 있던 방청객이 너석의 발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보쇼! 당신 지금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릴 하구 있는거야? '시국발언'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거야? 엑셀을 정확히 밟으라구!"

방청객의 항의가 있자 너석은 두 손을 번쩍 들어 아래로 다독이며 소요를 진정시키는 포즈를 취하고는 느긋하게 말했다.

"시국발언이 아니라 '보험발언'올시다. 제목을 달자면 '인간의 꼬리부활과 2천년대의 보험상품'이 되겠지요."

"보험발언에 뭇뻘시 '꼬리'가 달라붙는겨? 보험상품과 꼬리가 무슨 상관이 있단말임씨?"

시국발언이 아니라는 말에 잔뜩 실망한 할아버지 한 분이 다시 의의를 제기하자 너석이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라니깐?"

그리하여 강연은 다시 계속되었다. 방청객들은 저마다 너석의 '보험발언'과 '꼬리'의 함수관계를 짚어보며 너석의 요상한 스토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인간이 발로 다니던 유인원(類人猿)의 시절에 꼬리는 감정을 나타내거나 동작의 중심을 잡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두 발로 서서 걷게 됨으로써 중심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자 꼬리는 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두 발로 서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뇌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뇌가 발달하는 것과 꼬리가 퇴화되는 것은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두 달 된 태아(胎兒)에게는 분명히 꼬리가 돌아 있다고 합니다. 단 뇌가 형성되는 두달째부터 꼬리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꼬리가 없어진 원인은 뇌의 발달 때문인 것입니다."

2천년대의 보험상품에 관한 심포지움은 어느덧 '꼬리 심포지움'으로 변질되어 무르익어갔다. 주최측은 속이 탕지만 방청객이 너석에게 동조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너석이 분명히 보험발언이라고 했으니 귀신 씨나락까는 저 '꼬리론'이 어떻게 '보험상품'과 접목이 되는가? 그렇게라도 이어진다면 심포지움의 의의는 찾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한가닥 희망을 간직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너석은 계속 꼬리퇴화론만 들먹이고 있질 않은가?

"그건 우리도 다 아는 얘지요. 인간에게 꼬리가 부활한다는 근거부터 먼저 말해주시오!"

답답한 것은 방청객도 마찬가지였다. 꼬리의 퇴화론 보다 꼬리의 부활론에 흥미를 느끼고 있던 방청객이 다시 브레이크를 걸었다.

"원 성미도 급하시지. 그 말을 하기 위해 나도 지금까지 떠들고 있는거요. 말이란 순서가 있는 법 아니요? 좋소,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하리다. 앞서 말했듯이 꼬리의 퇴화는 인간의 뇌의 발달과 반비례 했습니다. 바꾸어 말해 인간의 뇌가 작아지거나 없어지면 즉 저능인간이 되면 꼬리는 다시 부활

한다는 것입니다.”

“여보쇼! 인간의 뇌가 발달하면 했지 퇴화될 리가 없질 않소?”

“여보쇼! 그건 어디까지나 있을 수 없는 공상일 뿐인데 심포지움의 주제인 보험상품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방청석의 여기저기서 너석의 궤변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너석은 그들의 이의를 하나하나 공박하고 나섰다.

“여러분 나는 지금 공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꼬리가 부활할 날은 머지 않아 도래합니다. 아마 지금도 꼬리가 돌아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증명해 드리죠.”

“여러분은 지난 해 개헌논의때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중심제나 내각제나 하는 문제로 감론을 박 지리멸렬 다투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참 답답했을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이건 내각중심제이건 그게 무슨 중요한 문제였던 말입니까. 마음을 비우고 정치를 하면 대통령 시험제가 되든 예비뽑기가 되든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마음속에 뭔가를 숨기고 그 문제를 풀러니까 싸질만 하게 된거죠. 마음만 비우면 될 그 쉬운 문제를 못 풀고 싸움만 한 국회의원님들, 따지고 보면 다 머리가 나빴다는 증거입니다.

또 박종철군 물고문 사건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 밝혀질 일을 가지고 사건을 조작하느라고 요리조리 핑계만 일삼다가 들통난 거 보셨죠? 고작 통박을 굴렀다는 게 회초리로 맞을 일을 몽둥이로 맞을 통박을 굴렸으니 그게 다 머리가 나쁜 탓 아니고 뭐니까?

새마을 사건도 그래요. 급히 먹으면 체하거나 설사를 한다는 걸 왜 모른단 말입니까? 그건 세살 먹은 애들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먹을 것 못 먹을 것 구별 못하고 왕창 먹어 치우다가 설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다 머리가 나쁜 탓이죠. 머리가 나쁜 탓이었다는 건 새마을 사건 피고인이 법정에서 ‘난 몰러, 정말 몰러, 기억이 없어’하면서 시종 오리발을 내밀 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머리가 나쁠 수가?’하고 많은 방청객이 감탄했던 실례가 바로 그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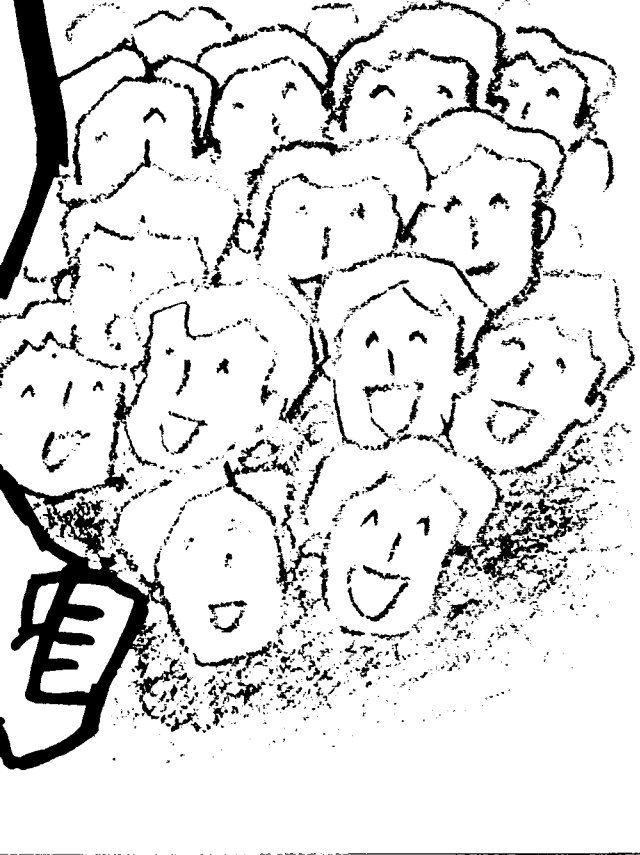


13대 총선 때 임후보한 사람들도 머리가 나빴어요. 4년동안 세비를 다 합해 봤자 1억원 남짓 한데 똥하러 수십억원씩 뿌려가며 금뱃지를 달겠다고 난리를 피운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밀지는 장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었다면 10억원 들여 1억원 버는 그런 미련한 짓은 안했을 거란 말입니다.

노사분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한발작씩만 물러서면 되는 그 간단한 문제를 너죽고 나살자는 식으로만 밀어부치는게 상책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게 어디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할 짓이겠습니까?

최근의 언론인 테러사건만해도 그렇죠. 머리가 제대로 굴러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죠. 또 머리를 제대로 굴렸으면 들통이 나지도 않아요.

이상 최근 몇년간 일어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각종 사건들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모두 머리가 나쁜 탓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모두가 제 정신이 아니라 이거죠. 제정신 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는 거 아니냐구요. 다시 말해 인간의 뇌가 한없이 나빠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에



게 국정을 맡기고 있는 여러분의 아이큐는 또 오죽할 것이며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인간의 머리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꼬리와 뇌의 반비례 법칙에 의해 꼬리는 다시 부활한다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예측하건대 서기 2천년대에 들어서면 인간의 꼬리가 부활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물론 머리 나쁜 사람들부터 부활되기 시작하겠지만 말입니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뵤튼 재미로 치면 그럴듯하기도 한 논리라서 방청객들은 흥미진진 경청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이때까지 잠자코 듣기만 하고 있던 언론 기자들이 흥미를 동감,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쳐서 인간에게 꼬리가 부활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선 만원버스에서 ‘꼬리 밟지 말아요! 어머 꼬리가 엉켰네요’ 하는 시비가 붙겠지요. 술집에선 ‘아이, 사장님 꼬리 그만 만져요’하는 새로운 교태음이 발생할 거구요. 청춘 남녀들 사이엔 ‘자긴 꼬리가 참 멋져’하는 말도 나올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패션업계에서는 ‘꼬리 패션쇼’같은 것도 개발하겠고 미장원은 ‘꼬리 파마’라든가 ‘꼬리 염색’ 등

을 신종상품으로 들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미스코리아선발대회와는 별도로 ‘미스 꼬리 코리아 선발대회’도 열겠지요?”

“인간에게 꼬리가 부활되면 참 재미 있는 일도 많겠군요. 또 뭐 없겠읍니까?”

“있지요. 여성잡지는 ‘꼬리로 감별하는 남성심리’ 같은 특집을 엮을거구요, 미(尾)과 전문 병원도 생길거구요, 학교에선 조희 때 ‘꼬리 간격 1미터 정열!’ 하는 구령도 들을 수 있겠지요. 국회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예전처럼 주먹질은 안할 겁니다. 그냥 꼬리만 잡고 늘어지겠죠.”

“아 정말 그럴듯하군요. 그러면 처음 말하신 2천년대 보험상품과 꼬리의 부활은 어떤 연관이 있지요?”

“중요한 얘기를 빠트렸군요. 한마디로 ‘꼬리 보험’을 개발해야 한다 이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스 꼬리 선발대회’가 있고 꼬리가 남성미 여성미의 기준이 되는 세상이 되면 꼬리에 대한 관심도가 폭등할 겁니다. 더구나 교통사고로 꼬리가 잘렸다면 아무렇게나 버리는 성냥불에 꼬리가 그슬렀거나 화재로 목숨은 건졌는데 꼬리만 불타버렸다면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개발해야 한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꼬리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거죠.”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생의 강연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도용으로 필요한데 주소 좀 밝혀 주시지요.”

“중곡동 588번지 국립정신병원입니다.”

“의사이십니까?”

“아뇨, 단골손님이죠. 요즘 제 정신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와서 입원실이 부족하나봐요. 그래서 쉬고 있죠.”

강연장을 빠져나오면서 방청객들은 녀석의 강연이 ‘보험발언’이나 ‘시국발언’이냐고 왈가왈부 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듯 했다. 그러나 녀석이 지극히 정상적인 젊은이임에 틀림없다는 데에는 쉽게 결론을 내었다. 다만 너무 미래지향적인 것이 한가지 흠이라면 흠이라고. (●)